

문경노인복지센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무료침술행사 가져...

문경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미경)와 서울방주교회 침술봉사단은 6월 25일 오전 10시 문경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지역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무료 침술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문경노인복지센터와 서울방주교회 침술봉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침술봉사활동으로 지역어르신들과 시설어르신을 대상으로 침술을 실시, 고혈압 등 순환기 질환, 관절동통 등에 대해 진맥과 침술, 뜸을 놓아 드렸다.

침술봉사단원들은 8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침술, 혈압 및 건강정보 제공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또한 점심으로 잔치국수와 수육, 과일 및 떡 등을 대접하며 허기진 배를 채워 드렸다.

어르신들은 “무더운 요즘 몸에 기운도 없고 식욕도 없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가 자주없어 가기가 많이 힘든데 이렇게 침도 놔주고 뜸도 놔주고 하니 입맛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너무너무 고맙고 또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침술봉사관계자는 “농촌지역 노인들은 고된 농사일로 본인이 만성질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의료취약계층들을 이런 봉사활동으로라도 더 돌봐야겠다.”며 말했다.

김미경 센터장은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경노인복지센터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